

공동묘지

지거 쾨더, <공동묘지>, 캔 스에 유채

공동묘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에는 우리나라의 공동묘지와는 좀 다르게 생긴, 돌로 만들어진 서양식 무덤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묘지로 답답하다고 생각될 만큼 무덤들이 뾰뾰이, 그리고 어수선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몇몇 무덤에는 화초나 꽃들이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무덤과 짙은 어둠이 가득한 하늘 사이에는 담이 있는데, 이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벽에 가로막힐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모양은 다양한데,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임을,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사람의 무덤임을 가리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비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묘비가 크건 작건,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세워진 십자가나 심어진 화초나 꽃들은 희망을 의미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덤(죽음)이 인간의 끝·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1코린 15, 51-57)라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변화된 새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또한 '나팔이 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덤의 십자가들은 하늘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이정표처럼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이시니 말입니다.

그림 중앙을 살펴보면 커다란 그림자가 묘지를 덮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 자신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말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하늘 나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과 친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령 성월에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를 바칩시다.

- 2008년 11월호 「가톨릭 디다케」 '그림 보고 교리 보고' (글·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 퍼즐 그림은 「가톨릭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